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15호

대한축구협회 비리 축구인 징계 시면 사태 관련

2023.04.29(토) 16시 ~

위기의 대한축구협회, 무엇을 해야 하나?

2023 체육시민단체 연합 세미나 개최

프레스안 알립

문제 본질은 '승부조작'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장애체육인 대상 실태조사

장애인 선수 5명 중 1명, 최근 2년 사이 인권침해 경험

김경윤 연합뉴스 기자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고교 학생선수, 체육특기자 입학에 대한 선호도 조사

김세훈 스포츠경향 기자

호주축구협회

'무지개 완장' 허용될까...女 월드컵 여는 호주, 표현의 자유 지지

이의진 연합뉴스 기자

북한 운동선수 20명, 노동교화형 3~5년

北 운동선수들, '남한 말'로 끝말잇기 하다 교화형...가족들은 추방 기사 모아보기

정재우 세계일보 기자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2023 체육시민단체 연합 세미나

대한민국 스포츠 시스템의 혁신 : 농구협회 미래전략 디비전리그를 중심으로

◇ 사회

정용철 | 서강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정재용 | KBS 국장

◇ 자유토론

○ 일시 : 2023.04.29(토) 오후 4시 ~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관 1층 교육공학실

○ 주최 :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 주관 : 체육시민연대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문의 : 02)2279-8999 / sports-cm@hanmail.net

위기의 대한축구협회, 무엇을 해야 하나?

지난 3월 28일 대한축구협회가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을 포함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선수·지도자·심판·단체임원 등 모두 100명의 사면을 의결했다고 기습 발표했다. 해당 사면 결정은 경기장에서 최선의 승부를 위해 열심히 땀 흘린 선수들을 모독하고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팬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수많은 축구팬과 축구인들의 사면 철회 요구에 따라 3월 31일에 대한축구협회가 사면을 철회하고 4월 4일에는 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29명의 이사진이 전원 사퇴해 사태가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사면 결정의 의중과 배경 그 과정에 대한 의구심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는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금 드러난 대한축구협회 의사결정 과정의 폐쇄성과 조직 인선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축구팬을 비롯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18일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 마포구 스페이스엠에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는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김현희 스포츠니어스 대표, 이근승 스포츠 춘추 축구팀장, 정윤수 스포츠 평론가, 한준희 축구해설위원 등이 참석한다.



위기의 대한축구협회

무엇을 해야 하나?

대한축구협회 징계 사면 사태의 문제점과 이후의 쇄신 과제

일시 _ 2023.04.18.(화) 오후3시, 스페이스엠 (홍대입구역)
 온라인 중계 _ 문화연대 유튜브 채널 [youtube.com/@culturalaction](https://www.youtube.com/@culturalaction)
 주최 _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주관 _ 문화연대

사회 _ 정용철(서강대학교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
 발제 _ 정희준(문화연대 집행위원) : 대한축구협회 징계 사면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 _ 김현희 스포츠니어스 대표, 이근승 스포츠 춘추 축구팀장, 정윤수 스포츠 평론가, 한준희 축구해설위원, 이지우 인천네이션

문제 본질은 '승부조작'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지난 3월 28일 대한축구협회는 저녁 7시 징계 중인 축구인 100인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31일 철회했다. 한국축구의 명예가 시궁창에 처박힌 사건이다. 이번 '기습사면 스캔들'에서 드러난 대한축구협회의 문제는 다양하면서도 매우 심각하다. 우선 협회의 의도가 매우 저급하다. 이사회를 상암경기장 회의실에서 열고 경기 한 시간 전에 사면을 발표했다. 축구열기에 묻어가자는 것이다. 사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안 좋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꾸민 것이다.

또 이미 언론에서 드러났듯 협회는 이번 결정을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였다. 사실 외부 의견을 구하긴 했다. 연초에 협회는 2011년 승부조작 징계 당사자인 프로축구연맹에 의견을 구했다. 연맹은 반대했다. 한국축구가 아직 승부조작으로부터 청정지역이 아니고 올해 중국 프로축구가 제때 개막을 못하는 이유도 승부조작에 70여명의 선수가 연루됐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을 사면해주는 나라도 없다며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했다. (28일 이사회에서도 연맹의 조연상 사무총장만 반대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이 의견을 무시했다.

결국 이번에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은 협회 운영의 폐쇄성이다. 이는 전임 정몽준 회장 때부터 지적되어 온 것인데 현 정몽규 회장에 이르러서도 변화의 조짐이 없다. 특히 28일 이사회에서 연맹 측 조연상 이사 외 그 누구도 반대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이영표, 이동국 부회장 등 젊은 선수출신 임원들도 묵인, 동조했다. 젊은 회장단들이 사실상 '거수기'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이사회 주요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도 묻지 않고 통과시킨 것은 협회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 수준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선수들'이 아니라 '부패·비리 축구인 구하기' 밀실 프로젝트

이미 많은 축구팬들은 의심하고 있다. 협회가 협회와 가까운 축구인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선수들을 '끼워넣기' 한 것 아니냐고. 설마 그럴 리가.

사면과 관련하여 협회는 "오랜 고민 끝에 이들이 이미 국가의 처벌을 받았으며, 긴 시간 동안 징계를 받으며 많은 반성을 했다고 판단... 이들에게 한국축구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로 한 결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배경을 설명하며 승부조작에 대한 사면임을 밝혔다.

정몽규 회장도 사면 철회 입장문에서 "10년 이상 충분히 반성했고 죄값도 치렀으니 이제 관용을 베푸는 게 어떠한 일부 축구인의 건의를 2년 전부터 받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판단은 사려 깊지 못하였습니다. 승부조작 사건으로 인해 축구인과 팬들이 받았던 그 엄청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해 사면이 승부조작 징계 선수들을 구제해주자는 취지임을 밝혔다.

아니었다. 우리가 속은 것이다. 협회와 정 회장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하태경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사면대상자 목록>을 보면 그 사면이 과연 승부조작 선수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나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우선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수가 48명인데 승부조작 아닌 비리, 폭력으로 징계 받았다가 이번 명단에 포함된 사람은 그보다 많은 52명이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제명(17명)'과 '무기한 자격정지(14명)'를 받은 사람이 모두 31명인데 죄질도 아주 나쁘다. '금전 비리 행위,' '선수, 심판에 대한 폭력,' '실기테스트 부정'이 주를 이룬다. 선수들이 저지를 비리가 아니다. 그 외 자격정지 사유들을 보면 '부정선수 출전,' '등록증 위변조,' '고의 경기지연' 등 모조리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등 중견 축구인들의 비리행위들이다. 나는 이번 사면의 핵심은 바로 제명과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저 31명이라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 승부조작 선수들을 끼워 넣은 것이고.

"10년 넘게 반성했다"고!?

또 하나. 명단을 살펴보면 아무런 기준도 없이, 온갖 '뺨'이 난무하는 가운데 힘있는 자들이 자기 사람들 밀어넣기에 바빴음을 짐작케 한다. <사면대상자 목록>을 보면 80번부터는 2019년 이후 징계받은 자들이다. 86번은 '금전 비리 행위'로 2020년 자격정지 3년을 받은 자로 아직 3년도 채 되지 않았던지, 아니면 징계가 이미 끝났을 텐데 굳이 그를 왜 포함시켰는가? 특히 2022년 징계받은 자들이 무려 9명이다. 작년에 자격정지 6개월, 8개월, 1년 처분을 받은 자들이 도대체 왜 사면 명단에 올라가 있는가? "10년 넘게 반성했다"고?

결국 겉으로는 '승부조작 대사면'을 내걸고는 횡령, 뇌물수수, 폭력으로 징계받은 축구계 부패, 비리 인사들을 구제하는 것이 이번 사면 스캔들의 본질임을 알게 해준다. 이영표, 이동국 같은 젊은 부회장이나 축구인 출신 이사들에겐 동료, 선배님, 은사님의 문제였으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가다가 같이 망한다.

불통의 '현대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몽준 전 회장에 이어 정 회장은 3연임하면서 무려 30여년에 걸쳐 한국축구를 현대가의 '패밀리 비즈니스'로 만들어 놓았다. '전제군주'가 지배하는 이곳 '현대축구협회'에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래 전 사라졌다.

협회는 지금 쇠신안을 만들고 있는가. 사면 철회로 대총 넘어가려는 것 아닌가 싶다. 축구팬과 국민을 기만하고 모욕했던 이번 스캔들은 한국축구협회가 얼마나 조직답지 않은 조직인지, 그 추한 실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보였다.

사면대상자 목록을 분석해 보면 금전 비리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24명이고 선수, 심판에 대한 폭력 행위자가 15명이다. 이런 자들을 사면해주겠다고 나선 축구협회도 '제 정신인가?' 싶지만, 왜 축구엔 이렇게 금전 비리와 폭력 지도자가 많은지 그에 대한 반성과 대안 마련부터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승부조작, 금품 비리, 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지속적인 캠페인,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상벌시스템이다.

협회는 이 스캔들의 여파로 정 회장을 제외한 전 임원이 공석이다. 회장 지인, 저명인사, 이름값만 높은 구색맞추기 인사는 더 이상 지양해야 한다. 축구행정과 협회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들로 자리를 채워야 한다. 그리고 협회 안팎에서 '불통'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 축구협회에서 축구인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수십년 된 이야기다. 편가르기 없이 다양한 목소리에 경청해야 한다. 이번 스캔들의 원인도 결국 불통 아니었나?

장애인 선수 5명 중 1명, 최근 2년 사이 인권 침해 경험



전국 장애인 선수 5명 중 1명은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2일 '2022년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설문에 참여한 장애인 선수 중 20.5%가 최근 2년 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며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지도자는 15%, 심판은 13.7%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인권침해의 대표 사례는 이동권 및 접근권 문제다.

설문 참가 선수 중 13.3%는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이동에 불편함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인권침해를 당한 선수 대부분은 소극적인 대응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경험 선수 3명 중 1명은 아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언어·신체 폭력 및 따돌림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5.0%에 달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 및 신고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으며 전국 장애인 선수 2천204명, 지도자 466명, 심판 306명이 참여했다.

“고교 학생선수를 보면
대학 학생선수가 보인다!”

고교 알통 보고가세요!

고교 학생선수, 체육특기자 입학에 대한 선호도 조사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회장 조명우·KUSF)가 전국 17개 시·도 운동부 운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51개 종목 학생 선수 18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 체육특기자 대학입시 관련 고교 학생선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교 학생선수들은 체육특기자로 대학 진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4.1%가 체육특기자로 대학 진학을 계획했다. 고교 3학년(67.3%)과 수도권 고교 학생선수(68.7%)의 경우에는 비율이 더 높았다.

고교 학생선수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프로 및 실업팀 입단을 위한 과정(43.1%)’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졸업장 취득 및 취업 등 선수 은퇴 이후 대비(34.8%)’, ‘선수활동 유지(21.2%)’, ‘기타(1.0%)’ 순으로 응답했다. 프로리그가 있는 단체종목의 경우 10명 중 6명이 ‘프로 및 실업팀 입단을 위한 과정(59.4%)’이라고 답했다.

‘대학 진학 시 운동만큼 학업 활동도 중요하다’에 대한 질문에 고교 학생선수들은 긍정(58.8%), 보통(36.5%), 부정(4.8%) 순으로 응답했다. 1학년(53.9%)→2학년(61.6%)→3학년(63.4%) 순으로 고학년으로 이동함에 따라 학업에 대해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대학입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보통(54.4%), 긍정(33.0%), 부정(12.6%) 순으로 답했다. 체육특기자 선발에 있어서 가장 공정한 평가요소에 대해(중복 응답) ‘개인 입상실적(27.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내신, 출결 등 학생부(18.6%)’, ‘팀 입상실적(17.2%)’, ‘실기(13.8%)’, ‘면접(10.0%)’, ‘경기 영상자료(8.6%)’, ‘포트폴리오 등 서류(4.8%)’ 순으로 나타났다.

KUSF는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 2022년 11월24일부터 12월16일까지 모바일을 활용해 조사했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준오차는 ±2.2%p다.

‘무지개 완장’ 허용될까... 女월드컵 여는 호주, 표현의 자유 지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을 뉴질랜드와 공동 개최하는 호주가 선수들이 자유롭게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도록 독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을 시끄럽게 했던 '무지개 완장' 착용이 허용될지 주목된다.

호주축구협회의 제임스 존슨 최고경영자(CEO)는 12일(현지시간)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우리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만 훌륭한 경기력을 뽐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라운드 밖에서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이 자유롭게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대회 규정에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현재 FIFA와 협력 중"이라고 했다. 존슨 CEO는 FIFA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다양한 사회, 정치적 이슈를 선수들이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소수자 문제를 예시로 들었다.

성소수자 지지 문제는 지난해 11월 열린 카타르 월드컵에서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무지개색으로 채워진 하트에 숫자 '1'이 적힌 원 러브(One Love) 완장 사태다. 대회 개막 전 잉글랜드·독일·네덜란드·벨기에·웨일스·스위스·덴마크 등 유럽 팀 주장들이 이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서기로 해 주목받았다. 이 완장 캠페인이 성 소수자를 지지하는 뜻에서 시작한 만큼 동성애를 형사 처벌하는 개최국 카타르에 항의하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자 FIFA는 '옐로카드 제재'로 맞섰다. 완장을 찬 선수에게 옐로카드를 줄 것이며, 더 강력한 징계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자 유럽 팀들도 결국 두 손을 들었다. FIFA는 대의는 존중한다면서도 '복장 규정'을 제재의 근거로 내세웠다. 장비 규칙 13조 8항 1호에 따르면 FIFA 주최 대회 본선에서는 FIFA가 허용하는 완장만 착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진이 계속됐다. 최근 정치적 구호라도 인권 등과 관련된 보편적 주제라면 문제 삼지 않았던 FIFA가 '이중잣대'를 보였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슬람 율법을 강제하며 성소수자를 용인하지 않는 개최지 중동의 입김 때문에 해당 결정이 나왔다고 본 것이다. 이에 카타르와 FIFA에 포용 정신을 되새기게 하겠다며 독일 대표팀은 '입 가리기', 잉글랜드 대표팀은 '무릎 꿇기' 퍼포먼스를 펼쳤다. 독일·벨기에·프랑스 등 정부 고위 인사를 비롯해 일부 미국 민주당 의원도 이 완장 착용을 지지한다며 FIFA에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존슨 CEO는 "완장이 될 수도 있고, 개별 국기일 수도 있다"면서 "아직 세부 사안은 파악하지 못했다. 우리도, 선수들도 모두 만족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여자 대표팀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지지한다. 그렇게 하도록 선수들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잉글랜드 여자 대표팀의 주장 레아 윌리엄슨도 남자팀 주장 해리 케인의 뜻을 받아 완장을 차고 월드컵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윌리엄슨은 4개국 친선대회인 아널드 클라크컵 도중 열린 기자회견에서 "(월드컵은) 우리가 믿는 가치를 알리기에 좋은 무대니 꼭 착용했으면 한다"고 힘줘 말했다.

북 운동선수들, '남한 말'로 끝말잇기 하다 교화형...가족들은 추방

북한에서 스케이트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단어들로 끝말잇기 놀이를 하다 수년간의 노동교화형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양강도 주민 A씨는 전날 RFA에 “3일 오후 혜산시 광장에서 고급중학교 졸업생 등 청소년 대상 ‘공개폭로모임’이 있었다”면서 “삼지연시에 갔던 체육 선수들이 훈련 도중에 오락회를 하다가 남조선 말을 한 것이 화근이 됐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2월 동안 양강도에서는 도내 청소년 체육 선수들을 모집해 삼지연(양강도 도시)에서 동계훈련을 실시했다. 이 중 고급중학교(고등학교) 졸업생이자 양강도 체육단 선수로 지명돼 입단을 앞둔 스케이트 선수 20명은 훈련 도중 여흥을 위해 열린 ‘오락회’에서 ‘말꼬리 잇기’(끝말잇기)를 했다.

그런데 놀이를 즐기던 일부 학생이 실수로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말했다. 이후 북한 당국은 오락회에 참가한 선수 20명 전원을 노동교화형에 처했고, 이 사실이 이달 3일 있었던 공개폭로모임에서 주민들에게 공개된 것이다. 이 폭로 모임은 양강도 안전국 및 검찰소 주최로 진행됐다.

A씨는 오락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3~5년의 교화형을 받았으며 “주민들은 앞길이 9만리같은 체육 선수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교화소에 보내진 것에 대해 너무나 처벌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개폭로모임 대상이 된 체육 선수들은 대부분 힘있는 간부집 자식들”이라면서 “하지만 이 문제가 중앙에까지 제기되면서 가차 없는 처벌 지시가 내려졌다. 해당 간부들은 해임 철직되고, 가족은 산간 오지인 삼수로 추방결정이 내려졌다”고도 전했다.

양강도 중부에 위치한 삼수군은 혜산에서 약 40km 떨어져있으며, 개마고원 끝자락에 걸쳐있는 산간지역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양강도의 다른 주민 B씨는 “당시 훈련 도중 있었던 오락회 영상을 누군가 손전화로 찍었었다”면서 “이후 한 여학생이 집에서 손전화기로 그 동영상을 보던 중 불시검열에 나선 단속원의 단속에 걸려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주민은 다만 이 여학생이 오락회 현장에서 영상을 직접 촬영했는지, 다른 사람이 찍은 영상을 전송받아 보던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B씨는 “현재 우리(북한) 내부에 있는 남조선 영화와 드라마는 몇 백, 몇 천개인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면서 “당에서 남한 말을 ‘괴뢰’말이라며 강하게 단속하지만,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남한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비밀에 붙이는데 근절할 방법이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는 오락회를 즐기던 선수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오빠’나 ‘자기야’ 등의 말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볼돌리기 논란’ 대한축구협회 비웃는 대학축구연맹 “징계 그대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48518&ref=A>

[특파원 리포트] “돈의 힘이 또 승리”...여자프로테니스, ‘평좌이 논란’ 중국 유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52314&ref=A>

학생 선수들 김연경 앞에서 '도핑방지 실천' 약속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4127700007?input=1195m>

충북유도회, 도내 초·중·고 선수 합동훈련 실시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60609>

경북 배드민턴 동호인·학생들 포항서 ‘셔틀콕 대결’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922>

“박세리 선수 될래요” 철원 주말 체육학교 골프교실 인기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8736>

선수들과 즐거운 배구교실...꿈나무들 희망도 무력무력

<http://www.jndn.com/article.php?aid=1681640268358800189>

울산 중·고등학생 선수들 전국사격 ‘금빛 명중’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023>

교육부, 초등학생 건강체력평가 1~4학년 확대 검토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925>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